

# 차기 은행연합회장 1官4民 구도 '5파전'... 민간출신 우세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 전경 /은행연합회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고사 임영록 제외 후보자 4명 민간출신 최후위, 16일 최종후보 1인 확정 '신한맨' 조용병, 유력후보로 거론 '농협맨' 손병환, 기획·전략통 평가 조준희, 정부와 가까운것 장·단점 박진희, 디지털 선제대응 등 성과

정부와 정치권의 '은행 때리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은행권을 대표해 정부와 소통하는 차기 은행연합회장 후보가 5명으로 압축되면서 차기 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례적으로 민간 출신 4명이 후보에 오르면서 은행권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민간 출신이 회장 자리에 오를 것이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0일 2차 회의를 열고 6명의 잠정 후보군(롱리스트)을 확정했다. 후보 명단(가나다순)에는 박진희 전 한국씨티은행장, 손병환 전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윤종규 현 KB금융지주 회장,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조준희 전 IBK기업은행장 등 6명이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고사 의사를 밝히면서 롱리스트는 5명으로 좁혀졌다. 이번 은행연합회 차기 회장 롱리스트는 이례적으로 민간 출신 후보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박진희 前 한국씨티은행장 손병환 前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前 신한금융지주 회장

후보자 5명 중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을 제외하면 4명이 민간출신이다. 업계에서는 관료 출신 인물이 유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회추위원은 민간 출신 위주로 차기 회장 후보를 추천했다. 현재 은행권은 정부와 정치권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때문에 은행권의 입장을 대변해 금융당국 및 정치권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책임자가 필요하다. 조용병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비은행 계열사 확대 등을 통해 신한금융의 성장을 이끌어온 '신한맨'이다. 회추위

내 동향인 충청권 인사를 중심으로 지지를 받고 있어 유력한 회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손병환 전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역시 1990년 농협중앙회에 입사한 '농협맨'으로 농협 내 대표적인 기획·전략통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조준희 전 기업은행장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전 선거 캠프에서 금융권 인사로 전문성을 보이면서 정부와의 소통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 정부가 가깝다는 것이 장점이자 단점으로 꼽힌다. 박진희 전 한국씨티은행장은 씨티은행의 디지털금융 강화와 모바일 및 인

터넷 뱅킹 전략 투자 등 디지털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온 인물이다. 유일한 관료출신인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2차관을 거친 후 민간으로 와서 KB금융지주 사장과 회장을 지냈다. 시장에서는 민간출신 후보자가 많은 만큼 이번 은행연합회 회장은 민간출신 인물이 선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역대 은행연합회장 14명 중 민간 출신은 단 4명뿐이었다.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은행권을 향한 시선이 좋지 않은 만큼 은행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지닌 전·현직 금융지주 회장들이 주목받고 있다"며 "은행권에서는 차기 회장으로 소통과 영향력 있는 인사가 선출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후위는 오는 16일 3차 회의를 열고 후보군을 면밀히 검토·평가한 뒤 최종 후보 1인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쳐 23개 정회원사가 참여하는 회원 총회에 안건을 올린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연내 전송기관 선정 금융위 "숨은 금융자산 17조 찾아가세요"

금융위, 내년 10월 25일부터 시행 "30개 보험사, 10만여개 요양기관 전산 연결 시스템 구축에 속도" 금융위원회가 4000만 보험 가입자의 정보를 처리할 전송대행기관을 연내 선정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당국이 철저한 준비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행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 소비자단체와 함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회의를 개최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내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보험 소비자는 실손보험 청구 시, 일일이 서류를 병원, 약국 등에서 발급받아 서면으로 보험사에 제출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행 후에는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원 등 요양기관에서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면 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지난달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실손보험을 가입한 약 4000만명의 개인정보 처리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보험업계와 의료계의 이해관계가 얽혀 전송대행기관 선정에서 마찰을 빚어서다. 애초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유력한 전송대행기관으로 거론됐다.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자 심평원의 대안으로 보험개발원이 떠올랐지만 구체적으로 진전된 사항은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애초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추진했었다"며 "이후 전송대행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이 대안으로 떠올랐다"고 설명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행을 앞두고 더 이상의 지체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은 여러 이해관계자와 회의를 열고 연내 전송대행기관 선정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는 최근 회의에서 "청구전산화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일정 등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 전송대행기관을 확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회의 참석자들은 내년 시행일에 맞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보험업계 및 소비자단체와 향후 추진 필요사항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30개 보험사와 10만여개의 요양기관을 전산으로 연결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시스템 구축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의료계와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 이전이라도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는 '의료·보험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금융위는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내년 초 입법예고할 것"이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향후 추진 필요사항을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의 추진 의지에 보험업계와 소비자단체는 제도 시행을 위한 적극 협조를 기대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예적금 7.3조, 보험금 6.6조 등 파인·어카운트 인포서 확인 가능 잘 쓰지 않는 은행 계좌에 남은 돈이나, 찾아야 했는데 내버려 둔 보험금 등이 1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소비자가 숨은 금융자산을 조속히 찾아가도록 내달 22일까지 '숨은 금융자산 찾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말 기준 숨은 금융자산은 총 17조9138억원으로, 예적금 7조2830억원, 보험금 6조6054억원, 신탁 1007억원, 증권 1조2758억원, 카드포인트 2조6489억원이다. 이번 캠페인은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숨은 금융자산을 찾을 수 있도록 참여회사를 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

사, 저축은행, 이외 상호금융권으로 확대한다. 유관기관과 금융회사는 자사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홍보물을 게시하고, 개별 고객을 대상으로 이메일 및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다. 숨은 금융자산은 인터넷홈페이지 파인에 접속하거나 휴대용 앱(App) 어카운트 인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어카운트인포 앱에서는 모든 금융권의 휴면 금융자산과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고, 1년 이상 거래가 없던 잔고는 즉시 현금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인터넷 홈페이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에서 '잠자는 내 돈 찾기'를 선택하면 업권별 숨은 금융자산 조회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전국 11개 단지서 총 5595가구 분양

분양 캘린더 송파 '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 등 11월 셋째 주에는 전국 11개 단지, 총 5595가구(일반분양 2368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1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문정동 '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 경기 파주시 동패동 '파주운정신도

시우미린더센터', 강원 춘천시 동면 '춘천금호어울림더퍼스트'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건보주택은 대전 서구 도마동 '도마포레나해모로' 1곳에서 오픈 예정이다. 현대엔지니어링과 DL이앤씨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 일대에 '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을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18층, 14개동, 총 1265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면적 49~74㎡, 299가구가 일

반 분양된다. 단지에서 반경 1km 거리에는 지하철 3호선 경찰병원역, 5호선 개롱역·거여역, 8호선 문정역 등 3개 노선이 지난다. 송파IC를 통해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등 차량 진입도 용이하다. 한화건설과 HJ중공업은 대전 서구 도마동 일원에서 '도마포레나해모로'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34층, 7개동, 총 818가구로 조성되며, 이 중 전용면적 59~101㎡, 568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이다. /김대환 기자 kdh@

## "주말, 전통시장 인근 우리은행 주차장 개방"

조병규 우리은행장, 소상공인 지원 우리은행은 조병규 은행장이 지난 8일 남대문시장상인회와 우리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소상공인들이 당면한 현실을 경청하고 은행의 지원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소상공인들은 전통시장이 처한 환경을 이야기하면서 ▲방문객 증가 ▲금융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우리은행은 본점 주차장뿐만 아니라 동대문시장, 통인시장 등 전통시장 인근 우리은행 소유 지점(21개 소) 주차장도 주말 개방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남대문시장



지난 8일 조병규 우리은행장이 남대문시장 상인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물건을 둘러보고 있다. /우리은행

이웃인 우리은행이 주말 동안 본점 주차장을 개방해 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겠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